

비싼 돼지고기, 삼겹살데이엔 반값

백화점·대형마트 3일까지 최대 반값...보성·제주돼지고기 등 할인도 롯데마트, 비계덩어리 저품질 방지 위해 유통단계 축소·샘플 검사 확대

'삼겹살 데이(3월3일)'에 발맞춰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삼겹살을 평소의 절반가격에 할인 판매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보성 녹돈, 제주돼지 등 인기 품종은 물론 삼겹살 외에도 목살과 앞다리살, 돼지갈비 등 다양한 돼지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히 최근 고기보다 비계 비율이 높은 '저품질 삼겹살' 논란이 일면서 유통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돼지고기 품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백화점·대형마트는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

우선 광주신세계는 오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보성 녹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삼겹살과 목살살은 각각 100g 당 기존 3980원에서 2670원으로 32.9% 할인 판매하며, 앞다리살(100g)과 돼지갈비(100g)는 기존 판매가보다 23.2% 할인된 1980원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품질 좋은 돼지고기로 이

름 높은 '제주돼지 삼겹살'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9일부터 오는 3월3일까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제주도 서귀포시축산농협과 협력해 엄선한 '제주돼지 삼겹살'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그 외에도 보성 녹돈 삼겹살을 3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또 오는 3월 7일까지 무항생제 돼지 삼겹살과 목살을 최대 30% 싸게 판매한다.

대형마트도 유통 단계 축소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인 돼지고기를 선보인다.

이마트 광주점은 오는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1등급 돈 삼겹살과 국내산 목살을 각 100g 당 1180원에 선보인다. 소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1인 2팩 한정 판매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 1일부터 7일까지 행사 카드로 전액 결제시 갈집, 무항생제, 얼룩도야지 등 브랜드 삼겹살들을 40% 할인가에 선보인다.

롯데마트 역시 29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삼겹

살데이를 맞아 '이번주 핫 프라이스' 상품으로 국내산 한돈 삼겹살·목살(100g)을 롯데마트 행사 카드로 결제 시 각각 1390원으로 기존가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삼겹살 수요 급증을 대비하기 위해 500 t의 행사 물량을 준비했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저가 고품질의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2kg까지 한정 판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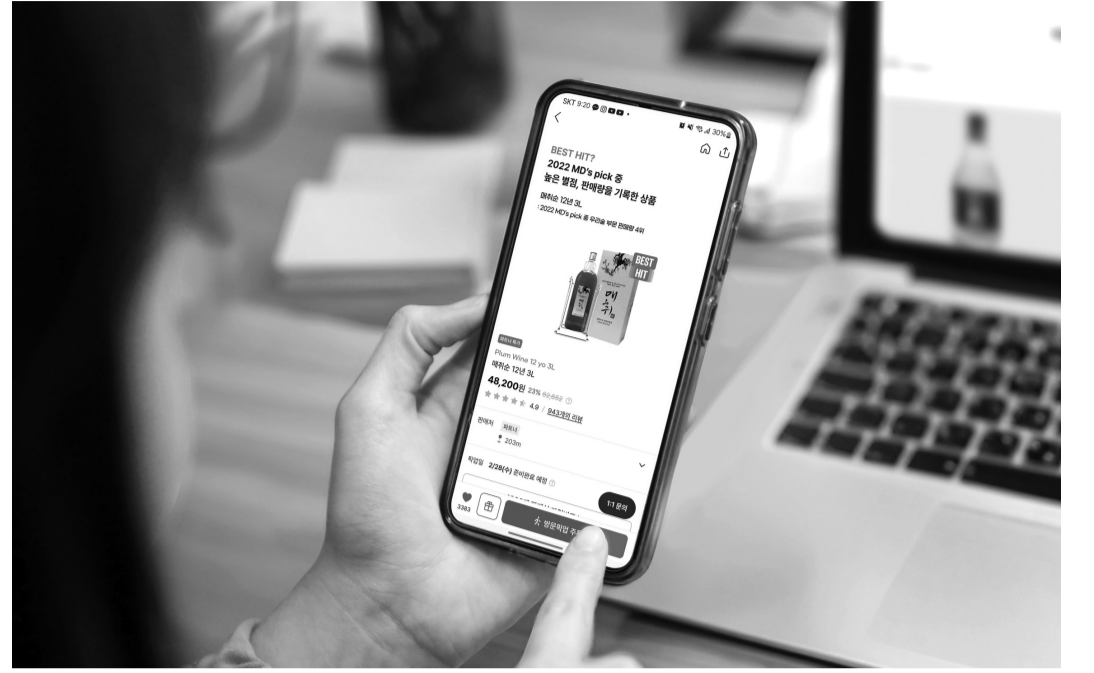
이어 롯데마트는 이번 행사에서 적절한 비율의 비계와 고기가 조합된 최적 비율의 삼겹살을 제공하기 위해 롯데마트가 직접 운영하는 '선순품질혁신센터'에서 직접 상품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롯데마트는 삼겹살 입고 단계부터 저품질 삼겹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샘플 검사 횟수를 기존보다 2배 증가시키고, 검품 기준을 상향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외식물가 상승으로 돼지고기 외식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민들이 집에서 삼겹살데이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저품질 삼겹살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는 품질과 가격 두 가지 모두 신경썼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보해 매취순, 간편한 '스마트 오더'로 즐겨요"



보해 제품 명절 판매 4.2배 급증 매취순12년 3L 매출 196% 달성

보해양조가 앱을 이용해 제품을 주문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오더(사진)' 서비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8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 '데일리샷'을 통한 보해 '매취순12년 3L' 제품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율은 196%를 달성했다.

데일리샷 내 보해 제품 판매량은 명절기간인 1월과 9월에 평달 대비 4.2배 많았다.

보해는 자사 제품의 선호도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스마트 오더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 매출 신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당장 GS리테일이 지난 2020년 선보인 '와인25플러스'는 출시 이후 2021년 1300%의 매출 신장률

을 보였고, 2022년에도 148%의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스마트 오더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 오더 서비스의 성장으로 보해는 앱 마켓 내 자사 제품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물이에 나서고 있다.

보해양조는 시즌별, 상품별 다양화 전략을 펼치며, 올 설을 앞두고는 GS25 와인25플러스에 입점했다. 와인25플러스'에서 매취순 제품 4종과 보해수주, 작년 GS25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RTD 캔 하이볼 매실 하이볼 '순(純)'을 판매하고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유통 채널이 다변화됨에 따라, 최근 온·오프라인의 연계성을 강화한 제품 판매 전략에 집중한 것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해양조는 특색있는 자사 제품들을 고객들이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제품군 확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력하고 조용한 다이스 공기청정기 할인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다이스 공기청정기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29일까지 본관 9층에 입점한 다이스 매장에서 공기청정기 제품을 품목별로 최대 30만원 할인 판매한다. 다이스 공기청정기 제품은 지능형 센서가 탑재돼, 공기 중 초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을 자동 감지 및 정화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편의점서 '히딩크 와인' 판매한다

세븐일레븐 '그랑크뤼' 기획전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3월 한 달간 소믈리에 자격을 갖춘 상품기획자(MD)가 추천하는 와인 기획전 '그랑크뤼 페스티벌'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랑크뤼는 1855년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파리박람회를 개최할 당시 도입한 와인 등급제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기획전에서 그랑크뤼 와인

7종을 포함해 총 63종의 와인을 선보인다.

그랑크뤼에서 가장 유명한 등급인 '메독 그랑크뤼' 와인도 대거 내놓는다. 국내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은 희귀 와인이다.

와인 MD가 직접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와인하우스를 방문해 물량을 확보하는 등 1년 6개월간 준비한 기획전이라고 세븐일레븐은 설명했다.

주요 상품을 보면 2002년 한국 축구를 월드컵 4

강으로 이끈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즐겨 마셔 국내에서 '히딩크 와인'으로 잘 알려진 '샤또발보 2021'가 눈길을 끈다.

러시아 황실의 공식 샴페인으로 지정돼 '황제의 샴페인'으로 불리는 '루이로드레 크리스탈15'도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50만원대 가격으로 명절 기획상품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고가다.

이밖에 와인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얻어낸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슈퍼투스칸' 와인도 만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계란 한판 4980원"...이마트, 가격파괴 선언

3월 핵심상품 계란·시금치·컵밥

이마트 광주점이 올해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가격파괴 선언'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가격파괴 선언'은 매달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반영해 상품을 선정하고, 한달 내내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인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이마트의 새로운 가격정책이다.

이마트 광주점은 오는 3월에도 소비자 수요가 높은 상품을 엄선해 '가격파괴' 상품들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마트 광주점은 '인기 먹거리·채소·가공식품'으로 구성된 3월 가격파괴 '식품 3개 핵심상품'으로 계란·시금치·컵밥을 선정했다.

우선 오는 3월28일까지 계란(30구) 1판을 4980원에 선보인다. 기존 판매가(7380원)보다 33% 저렴하며, 기존 행사 가격(5980원)보다도 1000원 내린 가격으로 1인당 하루 2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채소 중 하나인 시금치는 1단 기준 기준 판매가격인 3980원에서 50% 할인된 1980원에 판매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시금치(100g)의 소매가는 1036원으로 평년 625원 대비 65.7%, 1년전에 견줘서는 24.9%나 뛰었다.

이마트 광주점은 필수, 제철 식재료 중 가격이 급등해 소비자들의 소비 부담이 높은 품목들을 '가격파괴 선정' 상품으로 선정했다.

컵밥의 경우 CJ컵밥 3종(미역국밥·강원장 보리비빔밥·스팸마요덮밥)을 정상이 대비 50~56% 할인된 1980원에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오는 3월에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지만, 최근 각종 브랜드에서 가격을 높여 소비 부담이 커진 '두 마리 옛날통닭'을 9980원에 선보인다. 옛날통닭은 3월에만 50만 마리 한정 판매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